

‘알파걸’의 실재 및 진로발달 특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최윤진* · 임현정**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높은 학업성취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학생 집단이 ‘알파걸’로서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3-2008) 자료를 활용하여 알파걸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의 진로발달 변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알파걸 선정 기준으로 학업성취도, 성취동기, 자기신뢰, 자기계발, 학업 외 활동참여, 부모 유대관계를 설정하여 1차년도 자료를 분류한 결과 여학생 응답자의 15%(259명)로 나타났다. (2) 알파걸 집단의 진로성숙도는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3) 알파걸 집단의 성역할태도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알파걸 집단의 대학진학률은 75.3%로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희망 전공계열과 실제 진학계열간의 일치율은 1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알파걸의 실제 대학진학 계열 분포는 이공계, 사회계, 의약학계, 인문계, 예체능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여학생 집단에 비해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5) 알파걸은 구체적인 직업계획을 결정하고 진로실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대부분 전문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알파걸, 진로발달 특성, 진로성숙도, 성역할태도, 진로포부, 다층성장모형

*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 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화 추세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까지 10%미만이었던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자는 2007년에 외무고시(67.7%), 사법고시(35.2%), 행정고시(49%)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위클리 조선, 2008. 10. 27). 또한 소위 금녀(禁女)의 벽으로 불리어질 만큼 남성이 주류를 이뤘던 검찰·경찰·공안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도 폭증했는데, 1998년 17명(1.6%)에 그쳤던 여성 검사는 2007년에는 220명(13.6%)으로 8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여경(女警)은 1.8%(1696명)에서 5.7%(5907명)로 3배 넘게 늘었고 교정과 보호관찰직 여성공무원은 4.7%(825명)에서 9.6%(2080명)로 증가했다.

교육현장에서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늘면서 이른바 ‘남녀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3~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 여학생은 사회, 수학, 과학 교과에서 남학생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국어와 영어에서는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정은영 외, 2009). 남녀공학에서의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면, 1999년 이후 남학생 우위의 성별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남학생(66.6%)과 여학생(66.8%)이 거의 비슷해졌으며(정해숙, 2009: 45),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는 여학생 대학 진학률이 82.5%로 남학생의 81.6%보다 0.8% 포인트 높아져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닷컴, 2010. 3. 8).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맥락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Sikora & Saha, 2009; Buchmann & Dalton, 2002)에서도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학업 성취와 직업적 열망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능력과 성취결과가 탁월하게 높아진 추세가 반영되어 ‘알파걸’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알파걸’이란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Kindlon(2006)이 사용한 개념으로 1980년대 후반에 출생하였으며 공부나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엘리트 여성 집단이다. 이들은 여자라는 사실로 제약을 받지 않고 전통적 남녀역할, 의존과 독립, 지배와 복종 같은 이분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심리발달 이론과는 다른 변화

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알파걸’의 등장은 새로운 여성발달의 조류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분화 현상과 남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고교 시절 뛰어난 학업성취 결과와 대학 진학률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4년제 대학교의 전공분야별 여대생 분포를 보면, 인문계가 56%, 예체능 52.8%, 그리고 사범계 전공이 58%인 것으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계 37.8%, 자연계 43.9%, 그리고 공학계는 13.3%로 여전히 여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전공영역이 성별(gender-typed)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인 외, 2009: 188).

이 연구는 여성이 처한 상반된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의 징후로서 ‘알파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장래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위자(agent)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현장의 여학생 파워로 불리는 ‘알파걸’의 존재여부에 대해 경험적 탐색을 시도한다. 둘째,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능태로서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을 진로성숙도, 성역할태도, 대학 진학 계열선택, 그리고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과 직업포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기존의 여성 진로발달 연구경향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한다. 요컨대, 우수한 여학생 집단을 ‘알파걸’로 선정하고 이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사회적·직업적 성취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알파걸 개념 및 특징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Kindlon(2006)은 장래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리더의 재목으로서 여학생들을 1등 최고를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 ‘알파(α)’를 부여하여 ‘알파걸’(alpha girl)로 지칭하고 있다. 알파걸은 극심한 남녀차별을 경험한 이

전 세대와는 달리 여성운동의 결실과 함께 여성의 상승세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1980년대 후반¹⁾에 태어난 소녀 집단을 일컫는다. 알파걸은 재능 있고 욕심이 많고 자신감의 넘치며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학계에서 알파걸 논의의 출발은 여학생들의 심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신 여성심리학’(new psychology of women)의 기반 역할을 했던 ‘관계 지향’ 여성 개념으로는 신세대 소녀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신 여성심리학’은 프로이트 이후 남성 심리학자들이 여성들을 정서적으로 허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 것에 반해,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Gilligan, 1979).

이에 따르면, 남자는 남들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인생을 살며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반면 여자들은 자신들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과 협력의 틀에서 타인과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여성 심리의 본질적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관계, 협력, 유대, 배려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평가절하 되어왔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 예컨대 자신감 부족, 의존성, 우울증, 낮은 기대와 포부, 저조한 성취 등은 억압적인 남성 지배적인 사회문화 구조에 희생된 결과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주장은 AAUW(1991)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자부심이 낮은 것은 학교현장에서 성차별 때문이라고 본다. 예컨대, 여자 역할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며, 경쟁적인 남성 모델을 적용한 수업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성취도를 낮추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여학생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고착화시킨다고 입증하였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 소녀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심리적 자아발달 특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여학생들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며 남학생들과의 경쟁도, 이들을 능가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알파걸은 전통적으로 남성성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독립지향성과 여성의 관계지향성을 조화롭게 갖춘 균형 잡힌 자이를 가지므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때부터 미국은 대학에서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때로 일종의 전환기였다 (Kindlon, 2006: 8).

Kindlon(2006: 110-112)은 새로운 알파걸 심리의 특성으로서 독립, 자주, 자립, 야망, 능력, 도전을 느끼고 몰두해 보고 싶은 성향들을 발견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알파걸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10대 소녀들의 자부심이 중학교 때 급격히 하락하지 않고 남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긍정적인 역할모델, 학교 내의 성차별 감소, 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소녀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신세대 아버지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과학, 컴퓨터, 운동 분야에서 딸들에게 취미를 길러주고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적 사고방식을 전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딸들에게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하며 열심히 도전의식을 심어준다.

둘째, 알파걸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초경 시기가 늦어지고 수동적인 성역할의 영향을 덜 받고 자라 우울증 발생률이 적고 불안 점수가 낮다. 셋째, 알파걸은 자기중심(self-oriented)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알파걸은 자기중심과 타인 중심 가치가 상충할 때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중심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알파걸은 독립 및 관계지향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딸 양육에 아버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세상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관계성을 모두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소녀들은 좀 더 유연한 심리를 갖게 된 것이다. 다섯째, 알파걸은 좀 더 이성적인(rational)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 이 스타일은 자제력과 깊은 사고, 세부적인 사실의 기억능력 발달을 요구하며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한 스타일을 갖기보다는 불안에 대한 정신적 방어능력을 가진 유연한 소녀들은 주어진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 공학, 비즈니스의 직업분야에서 더욱 유용하다.

2. 여학생의 진로발달 특성 연구 검토

알파걸 개념이 최근에 대두된 만큼 직접적으로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을 다룬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2000년 이후에는 학업우수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발달 특성을 밝힌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기 여학생의 높은 학업성

취가 실제로 사회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로성숙도, 성역할태도, 전공 및 계열선택, 진로실현가능성과 직업포부와 같이 진로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최근에 대두되고 알파걸 집단의 진로발달 특성을 분석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숙정도를 나타낸다(Crites, 1978). 김경순(2001)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성숙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 높다는 것과 어머니의 직업과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윤은순(2006)도 영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초기 상태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률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최수정, 2006). 그 원인은 먼저, 진로성숙도의 초기 상태가 높은 학생은 더 이상 상승할 여지가 적은 '천정효과'의 영향으로 진로성숙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2)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진로발달과 직업세계에 대한 시야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성역할태도와 여성의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태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계열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취업직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여학생은 인문계열을 선택하고 성역할에 대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은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물리학, 수학, 공학과 같은 남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곽윤숙, 2002).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여성 전통직을 선호하고, 양성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여성 비전통직을 선호

한다(Reskin & Ross, 1990).

3) 계열 및 전공 선택

여성의 진로선택 연구에 따르면, 중등학교 수준에서 여학생들은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를 선호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 저조하여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로의 편중된 선택을 한다. 대학진학에서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이 적은 전공을 선택하여 이공계 영역보다는 인문과학, 언어, 사회과학, 예술, 교육과 같은 한정된 영역에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성별분리 현상을 가져오며 시장성(marketable)이 적은 전공을 선택한 결과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성의 진로선택에 있어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의 구분은 성별직업분리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 헤이즈(R. Hayes, 1986)에 의하면, 전통적 영역이란 여성들이 수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영역의 전공과 직업으로 여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female-dominated field)이며, 비전통적 영역이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영역의 전공과 직업을 의미하는데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male-dominated field)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30~34%미만일 때 비전통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여성 비전통적 영역으로 수학, 자연과학, 공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은 대표적인 남성지배적 분야에 해당되며, 반면에 여성지배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정학, 예술학, 사범계, 어문학 전공은 여성 전통적 영역을 의미한다.

최지희 외(2000)는 우수 여학생의 최근 5년간의 진학추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수 여학생의 경우 일반 여학생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이학계 및 공학계 진학자의 비중이 높아 일반 여학생보다는 전통적 영역의 전공집중 현상이 완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여학생의 진학 전공 분포는 여전히 남학생의 전공분포나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분포와는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 여학생의 전공 분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4) 진로실현 가능성 및 직업포부

지금까지 여성들은 다른 집단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nson, 1994). 여성의 진로실현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과 자신감은 성별에 따른 직업선호도에도 반영되어 여자대학생들은 교육 관련직,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직, 보건의료직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호를 높게 보이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주로 공학기술직, 사무직, 의사직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신선미, 2003; 진미석, 윤행한, 2003).

그러나 최근에 학업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을 비교한 연구(박은혜, 2006)에 따르면, 학업우수 청소년의 경우 초등과 중등에서는 포부수준이 우수 여학생보다 우수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우수 청소년의 경우 학교단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높은 지위를 갖는 직업 위주의 진로선택이 나타났고, 다양한 직업 분야를 희망하기보다는 주로 연구직과 고위 관리자 등 한정된 직업 분야를 희망하였다.

한편 하정(2007)은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업 우수 여자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직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학업우수 여학생의 직업결정 과정은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 과정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탐색, 선택, 조율, 수용,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과 성장을 키워가고 학업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학업우수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제약이나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발달단계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가정 분위기에서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이들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진로발달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비록 '알과겉'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우수 여학생 집단은 일반 여학생 집단과 다르게 진로성숙도가 높고, 개방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며, 비전통적 영역의 전공과 계열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주체적인 진로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표하도록 층화다단계군집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된 중2패널은 2003년 104학교의 3,449명을 대상으로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6차년도인 2008년까지 추적 조사되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6년에 걸친 표집학생 개개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대학 진학 결과의 파악이 가능하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알과걸의 기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2003년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와 성역할 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1~6차년도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학계열 선택, 진로결정 및 직업포부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고2)와 6차년도(대1)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준비성과 결정성의 하위 영역을 가진 구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준비성은 자기이해와 직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고, 결정성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과 결정, 독립적인 진로 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청소년용질문지의 1-1~1-7번 문항과 12-12~12-17번 문항을 합하여 총 14개로 각 문항은 0~5점까지 6단계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1-1, 1-2, 12-12, 12-13번은 준비성 문항으로 나머지 10개 문항은 결정성으로 분류²⁾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석

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으로 고정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 소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관과 남성관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 성역할 태도는 청소년용질문지 49-4번 문항을 통해 측정되는데, 이 중 49-41~3번 문항은 여성을 수동적, 순종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49-44~6번 문항은 여성관과는 상반되게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남성관에 찬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은 4차년도 청소년질문지의 11-3번 문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실제 진학 결과는 6차년도 질문지의 U-1번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장래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는 8번 문항을 통해서 '잘 모르겠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6단계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문항에 대한 4차년도와 6차년도 응답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6차년도 질문지 2번 문항을 통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확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먼저, 알파걸 집단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알파걸에 대한 문헌연구(Kindlon, 2006)를 통해 새롭게 대두된 알파걸 집단의 정의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 내용 및 항목 분석을 통해 알파걸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3) 설정된 분류 항목과 기준을 중2패널 1차년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알파걸 집단과 비알파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 남학생 집단도 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알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알파걸 집단의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집단의 진로성숙도와 성역할 태도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알파걸 집단의 발달 양상에 특징이 있는가를 파악

2) 6차년도 설문지에는 12번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준비성 1-1, 1-2번 문항, 결정성 1-3~1-6번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집단별 변화·성장 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2수준의 다층성장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개인 내 수준(within-subject level)

$$Y_{ti} = \pi_{0i} + \pi_{1i}Time_t + e_{ti}$$

Y_{ti} : 학생 i 의 t 시점에서의 종속변수 측정치

π_{0i} : 절편 모수. $Time = 0$ (2003년)일 때, i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π_{1i} : 성장률. $Time$ 이 1단위 변할 때, i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변화정도

e_{ti} : 1수준 무선평과. 독립, 정규분포이며, 분산은 σ^2 . $e_{ti} \sim N(0, \sigma^2)$

[2수준] 개인 간 수준(between-subject level)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beta_{02}(\text{알과여부}) + \beta_{03}(\text{성별} * \text{알과여부}) + r_{0i}$$

β_{00} : 초기 시점(2003년)에서 전체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평균

β_{01} : 성별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남학생=0, 여학생=1)

β_{02} : 알과집단 여부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비알과집단=0, 알과집단=1)

β_{03} : 성별과 알과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알과여부}) + \beta_{13}(\text{성별} * \text{알과여부}) + r_{1i}$$

β_{10} : 전체 학생의 평균 변화율

β_{11} : 성별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남학생=0, 여학생=1)

β_{12} : 알과집단 여부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비알과집단=0, 알과집단=1)

β_{13} : 성별과 알과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

r_{0i}, r_{1i} : 학생수준 잔차, $r \sim MVN(0, \tau_r)$

둘째, 알과걸 집단의 대학 진학계열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하던 진학 계열과 실제 대학진학 계열과의 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일치 정도가 성별과 알과집단 여부에 따라 다른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 전공 및 계열을 여성 전통적 영역과 여성 비전통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알파걸 집단의 진로실현가능성과 직업포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직업계획 여부를 비교하였다. 또한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4차년도와 6차년도 간 차이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직업포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와 6차년도에 조사한 희망직업의 대분류 분포를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알파걸 선정과 분류

알파걸 선정 기준은 Kindlon(2006)의 연구를 토대로 첫째, 뛰어난 학업성적 둘째, 높은 성취동기: 교육포부, 학업노력(공부욕심) 셋째,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감 넷째,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험 다섯째, 학업 외 활동의 적극적 참여 여섯째, 부모와의 좋은 유대관계 영역으로 나누고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알파걸 집단을 분류하였다. 6가지 영역별 선정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알파걸 선정 기준³⁾

분류 기준	변수 내용	선정기준
기준1_학업성취도	전교 등수 비율 수학·과학 성적에 대한 인식 수준(5점 Likert)	전교 백분위 상위 20% 2과목 모두 '잘 하는 수준' 4점 이상 응답
기준2_성취동기	미래 교육 포부 수준 현재 각 교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	'대학 이상' 4개 교과 이상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응답
기준3_자기신뢰	자기신뢰도 3문항 (5점 Likert) 나의 결정 신뢰/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내 삶을 주관	평균 4점 이상 응답

3) 알파걸 선정 기준 및 분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알파걸은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파걸의 진로선택 특성' pp.555-588. 참조

분류 기준	변수 내용	선정기준
기준4_자기개발	수상경력과 자격증 취득 여부	교내 또는 교외에서 개최하는 경시대회 수상 경력 자격증 1종 이상 취득
기준5_학업외 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1개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1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
기준6_부모와의 유대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대화정도를 묻는 6개 문항	평균 4점 이상 응답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영역의 기준 중에서 적어도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응답자를 알파 집단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 응답자의 15%(259명)가 알파걸로 분류되었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남학생 응답자의 15.1%(260명)가 알파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 변화 추이

1) 진로성숙도 변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연도별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알파집단이 비알파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높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6년에 걸친 종단적인 변화·성장 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진로성숙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준비성		결정성		진로성숙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상태	β_{00}	2.970**	(.020)	3.495**	(.018)	3.320**	(.017)
성별	β_{01}	.024	(.029)	.193**	(.025)	.137**	(.023)
알파집단 여부	β_{02}	.485**	(.056)	.345**	(.045)	.392**	(.044)
성별*알파집단 여부	β_{03}	.018	(.078)	-.031	(.062)	-.014	(.059)
평균 변화율	β_{10}	.081**	(.006)	.064**	(.005)	.069**	(.005)
성별	β_{11}	.028**	(.008)	-.011	(.007)	.002	(.006)
알파집단 여부	β_{12}	-.048**	(.016)	-.038**	(.013)	-.041**	(.012)
성별*알파집단 여부	β_{13}	-.008	(.021)	-.014	(.017)	-.012	(.016)
무선효과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1수준(개인 내 수준)							
연도별 개인별	e_{ti}	.461	(53.9)	.340	(55.2)	.279	(53.4)
2수준(개인 간 수준)							
연도별 초기상태	r_{oi}	.377**	(44.1)	.264**	(42.8)	.233**	(44.4)
연도별 변화율	r_{1i}	.017**	(2.0)	.012**	(2.0)	.011**	(2.2)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393**		-.559**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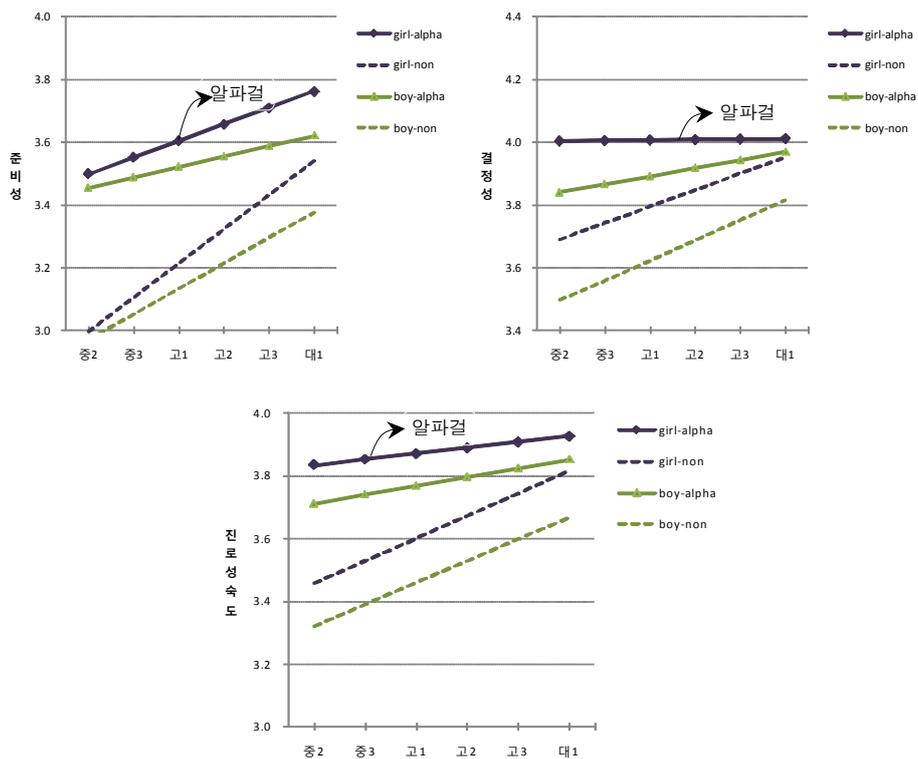
* $p < .05$, ** $p < .01$

준비성 영역의 초기치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알파집단의 준비성 초기치가 비알파집단에 비하여 .485점 더 높았다. 준비성의 연도에 따른 변화율에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준비성이 높고, 비알파집단 보다는 알파집단의 준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정성 영역은 준비성에 비하여 초기 상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서 조사 시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정성의 초기 상태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알파집단의 초기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변화율을 보면 성별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없으며, 알파집단의 경우 오히려 성장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높은 초기치의 영향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준비성과 결정성을 합한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알파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도 역시 결정성과 마찬가지로 변화율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알파집단의 변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무선효과 분석 결과, 세 변수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분산 성분 중에서 초기치 분산 비율이 40~45%, 변화율은 약 2%로 나타나서 각 개인의 초기상태 차이에 비해서 변화율의 개인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초기 상태가 높은 개인은 변화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진로성숙도의 변화·성장곡선

각 집단별로 추정된 선형의 변화·성장곡선은 [그림 1]과 같다. 알파걸 집단의 진로성숙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장 정도는 비알파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알파걸 집단은 이미 초기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척도 범위 내에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성역할태도 변화

연도에 따른 각 집단의 성역할태도의 기술통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비알파집단이 알파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알파걸 집단의 경우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남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인식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알파집단이 비알파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알파걸 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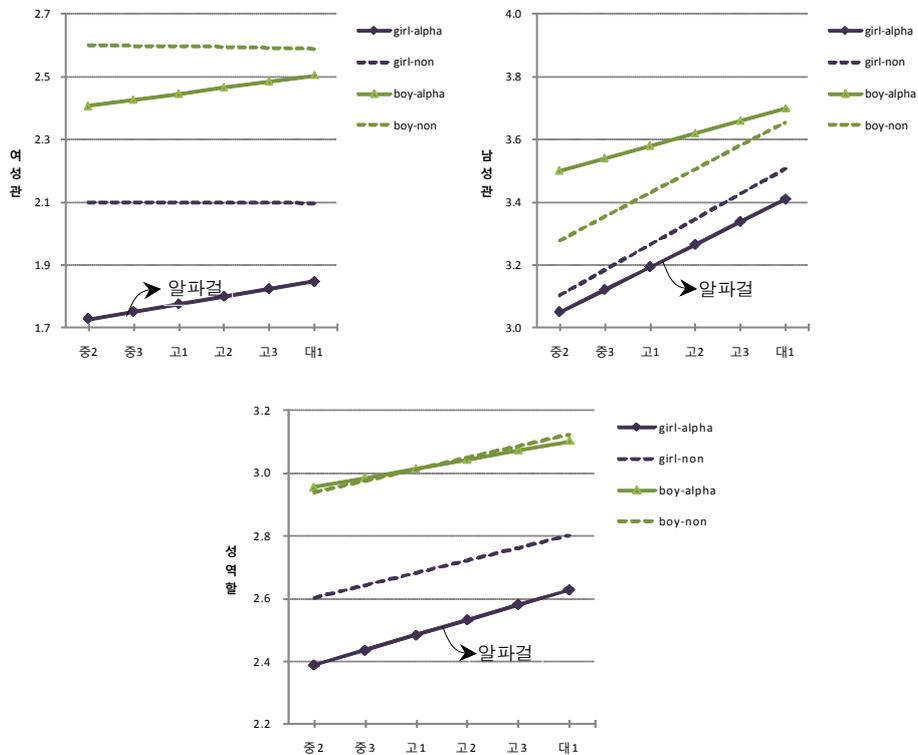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성역할 태도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여성관		남성관		성역할 태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상태	β_{00}	2.601**	(.017)	3.278**	(.018)	2.939**	(.017)
성별	β_{01}	-.502**	(.023)	-.175**	(.025)	-.339**	(.023)
알파집단 여부	β_{02}	-.194**	(.046)	.223**	(.045)	.016	(.044)
성별*알파집단 여부	β_{03}	-.179**	(.060)	-.278**	(.062)	-.229**	(.059)
평균 변화율	β_{10}	-.002	(.005)	.075**	(.005)	.036**	(.005)
성별	β_{11}	.002	(.006)	.005	(.007)	.004	(.006)
알파집단 여부	β_{12}	.022	(.013)	-.036**	(.013)	-.007	(.012)
성별*알파집단 여부	β_{13}	.003	(.016)	.028	(.017)	.015	(.016)
무선효과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1수준(개인 내 수준)							
연도별 개인별	e_{ti}	.354	(63.4)	.404	(56.7)	.233	(56.5)
2수준(개인 간 수준)							
연도별 초기상태	r_{oi}	.198**	(35.5)	.300**	(42.2)	.175**	(42.5)
연도별 변화율	r_{1i}	.006**	(1.1)	.008**	(1.1)	.004**	(1.1)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271**		-.419**		-.349**	

* $p < .05$, ** $p < .01$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초기상태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집단 및 비알파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초기치에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남자일수록, 알파집단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남성관에 대한 고정관념의 초기치는 알파보이 집단이 가장 높고, 알파걸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변화율은 비알파 집단이 더 높았다.



[그림 2] 성역할태도의 변화 · 성장곡선

전반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알파걸 집단보다 비알파걸 집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알파

보이 집단의 여성관은 낮고 남성관은 더 높았다. 알파보이 집단은 다른 남학생에 비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 한 반면, 남성에 대한 진취성이나 적극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관과 남성관을 모두 고려한 성역할태도의 초기상태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파집단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연도별 변화·성장 곡선은 [그림 2]와 같으며, 여성관에 비해 남성관의 증가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3) 대학 진학계열의 변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하는 진학 계열과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제 진학한 계열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전공계열을

<표 4> 희망 진학 계열(2006년)과 실제 진학 계열(2008년)

계열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희망 진학 계열 (2006년)	인문계	57	(22.0)	334	(22.8)	65	(25.0)	370	(25.3)
	사회계	21	(8.1)	123	(8.4)	27	(10.4)	86	(5.9)
	사범계	8	(3.1)	78	(5.3)	9	(3.5)	54	(3.7)
	이공계	52	(20.1)	251	(17.1)	36	(13.8)	252	(17.2)
	의약학계	28	(10.8)	111	(7.6)	19	(7.3)	77	(5.3)
	예체능계	18	(6.9)	164	(11.2)	28	(10.8)	167	(11.4)
	기타	58	(22.4)	304	(20.8)	47	(18.2)	260	(17.7)
실제 진학 계열 (2008년)	무응답	17	(6.6)	100	(6.8)	29	(11.2)	199	(13.6)
	인문계	25	(12.8)	117	(11.7)	9	(5.9)	59	(6.5)
	사회계	46	(23.6)	286	(28.6)	39	(25.7)	190	(21.0)
	사범계	17	(8.7)	71	(7.1)	5	(3.3)	16	(1.8)
	이공계	47	(24.1)	194	(19.4)	72	(47.4)	489	(54.0)
	의약학계	28	(14.4)	128	(12.8)	5	(3.3)	31	(3.4)
	예체능계	22	(11.3)	160	(16.0)	10	(6.6)	92	(10.2)
기타	0	(0.0)	7	(0.7)	4	(2.6)	9	(1.0)	
무응답	10	(5.1)	36	(3.6)	8	(5.3)	19	(2.1)	
대학 진학률	75.3		68.2		58.5		61.8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인문계열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알파걸 집단의 경우, 인문계열(2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공계열(20.1%)을 선택하고 있으며, 의약학계열은 10.8%를 선택하고 있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⁴⁾를 기초로 실제 진학한 결과를 살펴보면, 알파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진학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알파보이 집단의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다른 집단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여 알파보이 집단만 재수생이 55명(21.2%)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학한 계열의 분포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사회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의 진학 비율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전체 진학자의 반수 이상이 이공계열에 진학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알파걸 집단에서 이공계열과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 희망 진학 계열 조사에서 나타났던 알파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 실제 진학에까지 발현되지 못한 반면, 비알파걸 집단의 진학 계열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집단의 대학진학률 및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장래 희망 전공 계열에 대한 응답 결과와 졸업 이후 실제 진학한 대학의 계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산출하여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희망 계열과 실제 진학 계열의 일치율(%)

계열구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인문계열	2.3	2.7	1.6	2.4
사회계열	3.4	2.3	4.7	.8
사범계열	.6	.0	.0	.1
이공계열	2.9	3.1	7.0	13.3
의약학계열	1.1	1.6	1.6	.4
예체능계열	.6	1.6	1.6	1.1
일치율	11.0	11.2	16.4	18.1

4) 2008년 조사된 6차년도 자료에서는 현재 대학교 1학년 진학사항에 대해 학부(계열), 전공(학과)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강성국 외(2009). 200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을 참조하여 대분류 체계로 분류하였음.

희망 계열과 실제 진학 계열 간 일치도는 10~20%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공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던 남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일치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그러나 희망하는 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10명 중 1~2명 내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알파걸 집단의 진학 일치율이 비알파걸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중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을 희망하던 학생이 사회계열이나 의약학계열에 진학하고, 의약학계열을 희망하던 학생은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여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의 경우 의예과, 치의예과 선택보다는 간호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법학과와 의학과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부 계열만으로 법조인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 진출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 전공계열과 실제 진학계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 집단의 진학계열 일치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곧 성별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ayes(1986)의 기준에 따라 여성 다수가 지배하는 전공분야(인문, 사회, 예체능, 교육, 생활과학, 보건, 간호, 과학 교육)를 ‘전통적 영역’으로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전공분야(정치, 경제, 경영, 행정,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공학, 공학, 컴퓨터)를 ‘비전통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실제 진학계열 및 전공의 특성

전공 및 계열 분류 (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전통적 영역	104	(56.2)	575	(59.6)	32	(22.2)	209	(23.6)
비전통적 영역	81	(43.8)	389	(40.4)	112	(77.8)	675	(76.4)

알파걸 집단은 비알파걸 집단에 비해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인 비전통적 영역을 더 높게 선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전통적 영역의 비율이 높았으나 비전통적 영역과의 차이가 약 10% 내외이지만, 남학생은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77.8%, 76.4%로 나타나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로실현 가능성 및 직업포부 변화

알과걸 집단의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직업계획 여부를 비교한 결과 알과걸 집단은 구체적인 직업을 확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략적으로 결정해 놓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장래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알과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구체적인 직업 계획 여부(2008년)

직업 계획 여부 (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확정	79	(34.2)	377	(30.1)	60	(28.8)	290	(25.4)
대략 결정	118	(51.1)	610	(48.6)	99	(47.6)	497	(43.6)
미정	34	(14.7)	267	(21.3)	49	(23.6)	353	(31.0)

다음으로 진로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0에서 5점의 6단계 척도로 응답한 결과 중에서 4점 이상인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장래 희망직업 달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 변화

희망직업 달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2006년	133	(64.3)	527	(47.1)	123	(64.1)	456	(49.7)
2008년	161	(81.7)	664	(67.3)	125	(78.6)	510	(64.8)
변화량(2008년-2006년)	28	(17.5)	137	(20.2)	2	(14.6)	54	(15.1)

알과걸 집단의 긍정적 의견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 및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로 2006년에 비해 2008년도에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향상되었고, 2006년 당시 긍정적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던 비알파걸 집단의 향상 정도가 가장 높았다.

알파걸 집단의 직업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진학 이전과 대학 진학 후 장래 희망직업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장래 희망직업 응답비율 비교(2006년 vs. 2008년)

희망직업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2006년	고위관리직	19	(9.2)	39	(3.5)	12	(6.3)	69	(7.5)
	전문가	166	(80.2)	768	(68.6)	133	(69.3)	548	(59.7)
	기술공/준전문가	1	(.5)	32	(2.9)	7	(3.6)	68	(7.4)
	사무 종사자	5	(2.4)	35	(3.1)	10	(5.2)	45	(4.9)
	서비스 종사자	11	(5.3)	189	(16.1)	13	(6.8)	89	(9.7)
	기타	5	(2.5)	65	(5.8)	17	(8.8)	99	(10.8)
2008년	고위관리직	7	(3.6)	42	(4.3)	15	(9.4)	53	(6.7)
	전문가	144	(73.1)	557	(56.4)	95	(59.7)	394	(50.1)
	기술공/준전문가	7	(3.6)	64	(6.5)	10	(6.3)	59	(7.5)
	사무 종사자	23	(11.7)	121	(12.3)	19	(11.9)	109	(13.9)
	서비스 종사자	9	(4.6)	149	(15.1)	5	(3.1)	84	(10.7)
	기타	2	(1.0)	24	(2.4)	6	(3.8)	56	(7.1)

대부분(73.1%)의 알파걸은 전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전문직에 대한 선호는 모든 집단에서 압도적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문직 희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남학생이나 비알파걸 집단에서는 전문직 희망 비율이 10% 이상 감소한 반면, 알파걸 집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알파보이 집단에서는 고위관리직 희망자가 다소 증가한 반면, 알파걸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상승추세와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뛰어난 학업성취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자신감과 능력을 갖춘 우수 여학생 집단 곧, 알파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진로발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고, 특히 알파걸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초기치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높은 초기치를 가진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알파걸 집단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초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파걸 집단이 가장 낮아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여학생은 사회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의 진학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이공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학생 집단이 이공계열과 비전통적 영역으로 편중된 선택을 한 결과에 비하여 여학생 집단은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약학계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파걸 집단은 비알파걸 집단에 비해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나타났던 알파걸 집단의 특성은 실제 대학 진학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비알파걸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진로실현 가능성과 직업포부의 변화에서는 알파걸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직업계획을 갖고 있었고, 장래 희망직업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포부에 있어서 장래 희망직업으로 전문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고위관리직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알파걸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시대적 조류로서 알파걸의 존재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학 진학계열 상황을 볼 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었고, 특히 성별에 따라 유형화된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진로선택의 제한과 타협을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진로선택 결정과정은 개인적 수준에서 동기, 능력, 가정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적 제약조건, 즉 인종, 성, 민족, 교육제도, 노동시장 특성 요인들로 인한 제한된 선택을 반영하기도 한다(Saha & Sikora, 2008). 이 연구에서 알파걸로 선정된 여학생 집단은 중·고등학교 때 높은 학업성취로 인한 자기 진로에 대한 인식과 포부수준은 높아졌지만, 대학진학 단계에서 적절한 진로지도와 교육적 개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관리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한 측면에 있어서도 희망 전공계열과 실제 대학 진학계열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진로포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과 희망 직업군만으로 진로 발달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여성의 활약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나 109개국 중 61위에 머무르고 있다(내일신문, 2010. 3. 8). 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높은 학업성취와 리더십 발휘로 청소년기를 주목받으며 성장한 우수 여학생 집단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직업적 열망을 사회적 성취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수한 여성 집단이 진정한 알파걸 집단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함께 대학교육에서도 이들의 직업적 포부와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알파걸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회 진출 결과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 관련 변인이 연속적으로 측정된 패널 자료가 필요한데,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알파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되는 변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알파걸 분류기준 중 일부 변인의 누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알파걸의 분류에 있어서 보다 정교한 기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곽윤숙(2002).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와 전공 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학 연구*, 제40권 제1호, pp.287-310.
- 김경순(2001).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재인 · 곽삼근 · 조경원 · 유현옥 · 송현주 · 심미옥 · 곽윤숙 · 오재립 · 박성정 · 이해주 · 나임윤경 · 임선희 · 민무속 · 정해숙(2009). *여성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혜(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선미(2003). *성별에 따른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차이: 여성 청년층을 위한 진로정책 검토.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윤은순(2006). *영재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영 · 최인봉 · 김희경 · 김소영 · 유진은(2009). *국기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변화 추이(2003년~2008년) -중학교 3학년-*.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해숙(2009). *남녀공학교육 현황과 성별 교육경험 분석.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교육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석 · 윤희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수정(2006).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 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 임현정(2007). *알파걸은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파걸의 진로선택 특성-*.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지희 · 이남철 · 곽윤숙 · 손유미(2000). *최근 5년간 우수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추이 및 향후전망*.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0-02.
- 하정(2007). *학업우수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근거이론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위클리 조선 2008. 10. 27 : 사회각계의 우먼파워
- 조선닷컴. 2010. 3. 8 : 여학생 대학진학을 남학생 앞질렀다
- 내일신문. 2010. 3. 8 :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1991). *Shortchanging girls, shortchanging America: Executive summary*. Washington, D. C.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 Buchmann, C., & Dalton, B.(2002). Interpersonal influences and educational aspirations in 12 countri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ntext. *Sociology of Education, Vol. 75 No. 2*, pp.99-122.
- Crites, J. O.(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alifornia: CTB/McGraw-Hill.
- Gilligan, C.(1979).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s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47 No. 4*, pp.481-517.
- Hanson, S. L.(1994). Lost talent: unrealized educational aspiration and expectations among U. S. youth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7 No. 3*, pp.159-183.
- Hayes, R.(1986). Gender nontraditional or sex atypical or gender dominant or research: Are we measuring the same th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9*, pp.79-88.
- Kerr, B. & Maresh, S. E.(1994). Career counseling for gifted girls. In W. B. Walsh and S. H. Osipow(Ed.), *Career counseling for women*, Hillsdale, NJ: Erlbaum.
- Kindlon, Dan(2006).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New York: Rodale Inc. 최정숙 옮김.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2007. 미래의 창.
- Reskin, B. and P. Roos.(1990). *Job queues, gender queues: Explaining women's inroad into male occupation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Saha, L.J., & Sikora, J.(2008). The career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school students: From individual to global effects. *Education and Society, Vol. 26 No. 2*, pp.5-22.
- Sikora, J., & Saha, L.J.(2009). Gender and professional career plan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Vol. 15 No. 4*, pp.385-403.

ABSTRACT

An Exploration of Alpha-girls and Change of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oi, Yoon-Jin* · Im, Hyun-Jung**

This study examines alpha-girls in Korea and investigates change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alpha-girls were scree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we then analyzed their career maturity, attitudes to gender roles, their major field of study, and career expectancy and occupational aspiration.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of NYPI from 2003 to 2008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5% of Korean female students were classified as alpha-girls. Second, the initial value of the career maturity of the alpha-girls were high, and their growth rate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Third, the attitudes to gender roles of the alpha-girls were liberal and progressive. Fourth, more alpha-girls choose their major in male-dominated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business,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comparison to non-alpha girls. Fifth, alpha-girls were positive in terms of their future careers and expected to be professionals in the future.

Key Words : alpha-girls, career maturity, attitude of gender role, career expectancy, occupational aspiration, multilevel growth model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4월 27일, 심사완료일 : 5월 17일

* Yonsei University Leadership Cente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부록 1]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기술통계(2003~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준비성	2003년	259	3.47	.94	1465	2.95	.88	260	3.51	.88	1465	2.94	.90
	2004년	239	3.55	.87	1355	3.15	.89	241	3.46	.93	1353	3.08	.87
	2005년	232	3.70	.84	1321	3.21	.92	237	3.46	.95	1335	3.16	.92
	2006년	233	3.49	.92	1322	3.25	.93	235	3.45	.96	1331	3.15	.90
	2007년	224	3.79	.91	1233	3.60	.90	229	3.66	1.02	1281	3.37	.90
	2008년	231	3.73	.92	1254	3.43	.96	208	3.62	.96	1140	3.33	.97
결정성	2003년	259	4.03	.64	1465	3.68	.75	260	3.92	.72	1465	3.52	.84
	2004년	239	3.98	.71	1355	3.74	.72	241	3.78	.80	1353	3.52	.79
	2005년	232	4.04	.67	1321	3.82	.67	237	3.87	.69	1335	3.65	.78
	2006년	233	3.90	.69	1322	3.83	.72	235	3.88	.68	1331	3.65	.77
	2007년	224	4.04	.67	1233	3.94	.72	229	3.97	.78	1281	3.76	.75
	2008년	231	4.05	.67	1254	3.94	.75	208	3.98	.73	1140	3.84	.77
진로 성숙도	2003년	259	3.85	.62	1465	3.44	.68	260	3.78	.67	1465	3.33	.74
	2004년	239	3.84	.67	1355	3.54	.68	241	3.67	.76	1353	3.38	.71
	2005년	232	3.92	.65	1321	3.62	.65	237	3.73	.68	1335	3.49	.72
	2006년	233	3.77	.66	1322	3.64	.69	235	3.74	.69	1331	3.49	.71
	2007년	224	3.95	.67	1233	3.83	.70	229	3.87	.79	1281	3.63	.72
	2008년	231	3.94	.65	1254	3.77	.72	208	3.86	.73	1140	3.67	.73

[부록 2]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성역할 태도 기술통계(2003~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여성관	2003년	259	1.74	.66	1465	2.09	.71	259	2.39	.85	1464	2.58	.76
	2004년	239	1.76	.71	1353	2.13	.73	241	2.45	.84	1351	2.62	.79
	2005년	232	1.74	.65	1321	2.07	.69	237	2.43	.80	1335	2.59	.77
	2006년	233	1.83	.69	1322	2.09	.71	235	2.50	.80	1331	2.62	.78
	2007년	221	1.85	.70	1231	2.09	.72	226	2.42	.83	1280	2.58	.78
	2008년	231	1.85	.66	1254	2.09	.71	208	2.50	.79	1140	2.55	.80
남성관	2003년	259	3.10	.95	1464	3.13	.87	260	3.58	.87	1465	3.33	.76
	2004년	239	3.05	.96	1353	3.13	.88	241	3.44	.92	1352	3.28	.82
	2005년	232	3.26	.87	1321	3.28	.81	237	3.52	.90	1335	3.44	.77
	2006년	233	3.26	.90	1322	3.39	.84	235	3.66	.84	1331	3.51	.79
	2007년	221	3.26	.91	1231	3.39	.83	226	3.67	.81	1280	3.55	.80
	2008년	231	3.49	.79	1254	3.51	.78	208	3.69	.76	1140	3.69	.75
성역할 태도	2003년	259	2.42	.66	1465	2.61	.64	260	2.99	.72	1465	2.95	.61
	2004년	239	2.40	.67	1353	2.63	.66	241	2.94	.75	1352	2.95	.67
	2005년	232	2.50	.63	1321	2.67	.59	237	2.98	.69	1335	3.01	.61
	2006년	233	2.54	.65	1322	2.74	.61	235	3.08	.67	1331	3.07	.65
	2007년	221	2.55	.67	1231	2.74	.61	226	3.05	.68	1280	3.06	.62
	2008년	231	2.67	.59	1254	2.80	.60	208	3.09	.64	1140	3.12	.63